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 학 기	2026년도 1학기	파견 국 가	캐나다
파견 대 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학 번	2024-13204	이 름	최연제
소 속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하며,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5 월 27 일
작 성 자	최연제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교환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살아왔던 것과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에 대해 더 알아가보고 싶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와 파견대학/지역의 특징

영어권 국가를 희망했습니다. 그 중 물가, 치안 등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와 호주를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고 어릴 적 여행했을 때 좋은 기억이 있던 캐나다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6개월 미만의 경우 따로 student 비자 없이 일반 관광 비자로 신청이 가능해서 ETA를 신청했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학교 기숙사를 신청했고 이는 학교에서 오는 메일이 오니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walter gage와 fairview에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Walter gage의 경우 타워형식으로 north,south,east 3개의 동으로 구성됩니다. Fairview는 주택 형식으로 작은 마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walter gage의 경우에는 1인 1실이되 6명이 주방과 거실, 화장실은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등록금의 경우 평소와 같이 서울대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UBC에 납부해야할 비용에는 기숙사비, 보험비(imed), 교통비 정도가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compass card를 통해 무제한 패스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하여 약 500만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파견대학 이메일을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쪽으로 문의를 넣으시면 친절하게 답변이 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역시 이메일로 안내가 올 것입니다.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1-10순위로 적어서 내면 학교 측에서 알아서 3-4개 정도로 수강확정을 해줍니다. 해당 학기에 열리는 과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변경하고 싶다면 학교 사이트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PSYC_101_Introduction to biological and cognitive psychology

심리학 과목으로, 기본적인 신경과학의 기초(뉴런, 의식, 꿈, 감각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부 부분의 경우 약간의 생물학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기 좋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흥미롭게 들을 만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SOCI_102_Inequality and social change

사회학 강의로, 역시 사회학의 기초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회학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어 처음 듣는 강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정말 좋으셨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해서 그런 문화차이도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을 종종 던지시고 학생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방식이 인상깊었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 discussion class가 일주일에 한 번 따로 열립니다.

· EOSC_110_The Solid Earth: A Dynamic Planet

지구과학 강의입니다. 사실은 정정 기간에 들어간 것이라 큰 흥미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지구과학의 기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과제나 퀴즈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시험을 2가지 형식으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를 만들어서 서로 의논해서 푸는 것인데 이 둘을 모두 고려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어서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 수업모두 공통적으로 출석체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과제 보다는 시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세 과목 모두 시험을 학기당 3번씩 보기는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서 ppt를 조금만 읽어보고 시간 투자를 약간만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학습 방법

PPT를 보고 공책을 가져가서 핵심 위주로 정리해 2-3회독 정도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수업 전공책의 경우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공책의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인데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사실 저는 스스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답하기 조금 어렵지만....!! 많이 듣고 최대한 말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겨울에 파견을 나갔어서 전기장판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각종 양념 소스들(간장, 고추장 등등)의 경우 현지에서도 한인마트 등을 통해 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서 편하게 잘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케어들 넉넉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짐을 쌀 때 물론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더 편하긴 하겠지만 용량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일반적인 외식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Tax와 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한 끼에 20달러 언더로 먹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반면 카페의 경우 그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학교 내에 여러 편의시설이 많다는 것이 UBC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nest 건물에 식당, 편의점 및 여타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BC의 경우 버스의 종점이라서 교통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다운타운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꽤 많아 불편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따로 현지계좌를 개설하지는 않고 트래블카드를 이용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을 보는 경우 Save on foods, No frills, Safeway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동아리는 따로 하지 않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으로는 시애틀, 보스턴, 뉴욕, 플로리다를 갔었고 캐나다 내에서는 밴프, 화이트호스(오로라), 퀘백과 몬트리올을 여행했습니다. 저의 경우 처음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 3-4월에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며 조금은 정신없기도 했지만 그만큼 너무 행복했고 여행과 관련해서는 후회나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밴쿠버 근교에서도 캐필라노 현수교, 스키장(그라운드스 마운틴, 휘슬러 등), 밴쿠버 섬과 같이 갈만한 곳들이 많으니 취향에 맞게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학교 근처에 바다가 정말 많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wreck beach 뿐만 아니라 Kitsilano beach, Jericho beach, English bay 등이 있고 스탠리 파크에서 보는 바다도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Jericho 비치에서 바다 넘어로 보이는 다운타운 밴쿠버 풍경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램 파크와 찰슨 공원의 여유로움도 기억에 남습니다. 밴쿠버가 화려하고 할 것이 아주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돌아보니 바다와 공원에서 한적하게 쉬던 순간들이 낭만이자 행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4개월동안 밴쿠버에서 생활하며 안전에 대해 큰 위협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으나, 다운타운쪽에 가면 약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만 혼자 밤늦게 다니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BC 캠퍼스의 경우 다운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Nest 지하에 food bank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기의 경우 매주 월목에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

는데 무료로 양파, 감자, 계란 등등 여러 식재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처음에 교환을 준비할 때는 여러 후기들을 읽으며 교환이 너무 좋았다,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말을 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특히나 교환 초반인 1월에는 적응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남들은 다들 행복하다는데 왜 나만 그러지 못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점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조금은 헤맸다고 생각한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 보니 교환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끝내 저마다의 행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